



**이쉬운 헤딩슛** 14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 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6차전 한국 대 카타르 경기에서 한국 김기희가 헤딩슛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종예선 '20년 무패행진'

1.5군 출격 홍명보호 카타르와 0-0 무승부

### 올림픽 본선 7월26일 시작

홍명보호가 올림픽 남자축구 최종예선 '20년 무패행진'을 달성했다.

한국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1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카타르와의 2012런던올림픽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 A조 조별리그 6차전 최종전에서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한국은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3승3무(승점12)로 예선전 일정을 마무리 하면서 20년간 계속된 올림픽 최종예선 무패기록을 이었다.

한국은 1992년 1월 바르셀로나 올림픽 최종예선에서 카타르에 0-1로 패한 후 치러진 올림픽 예선 29경기에서 패없이 21승8무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같은 시간 벌어진 오만(승점 8점)과 사우디아라비아(승점) 경기가 1-1로 끝나면

서 1승4무1패의 카타르(승점7)는 조 3위에 머물며 올림픽 본선 진출의 희망을 살리지 못했다.

앞선 오만의 경기에서 3-0 완승을 거두며 이미 7회 연속 올림픽 본선무대 진출을 확정지은 홍명보호 감독은 광주 FC의 김동섭을 최전방 원톱으로 세우고 카타르전에 나섰다.

한국은 전반 시작과 함께 빠른 페이스를 이용한 빠른 공격으로 카타르 골문을 노렸다.

전반 12분 윤일록(경남)의 강력한 오른발 슛이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2분 뒤에는 카타르가 반격에 나서 하산 알하이도스가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한국의 골망을 흔들었지만 부심의 오프사이드 깃발이 울렸다.

전반 42분 윤일록이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슈팅을 날렸지만 또 다시 골키퍼의 손에 걸리면서 득점없이 전반이 끝났다.

후반에도 한국은 거세게 공세를 펼쳤다.

서정진(수원)이 계속해서 슈팅을 날리면서 득점 기회를 엿봤지만 무위에 그쳤다. 한국은 후반 17분 서정진 대신 김태환(서울)을 투입하고, 후반 28분에는 미드필더 문상운 대신 공격수 심동운(전남)을 넣으면 분위기가 반전에 나섰다.

하지만 후반 32분 윤일록의 오른발 슈팅이 골키퍼 손끝에 걸렸고, 종료 직전 김태환이 페널티마크 부근에서 날린 오른발 슈도 골키퍼 품에 안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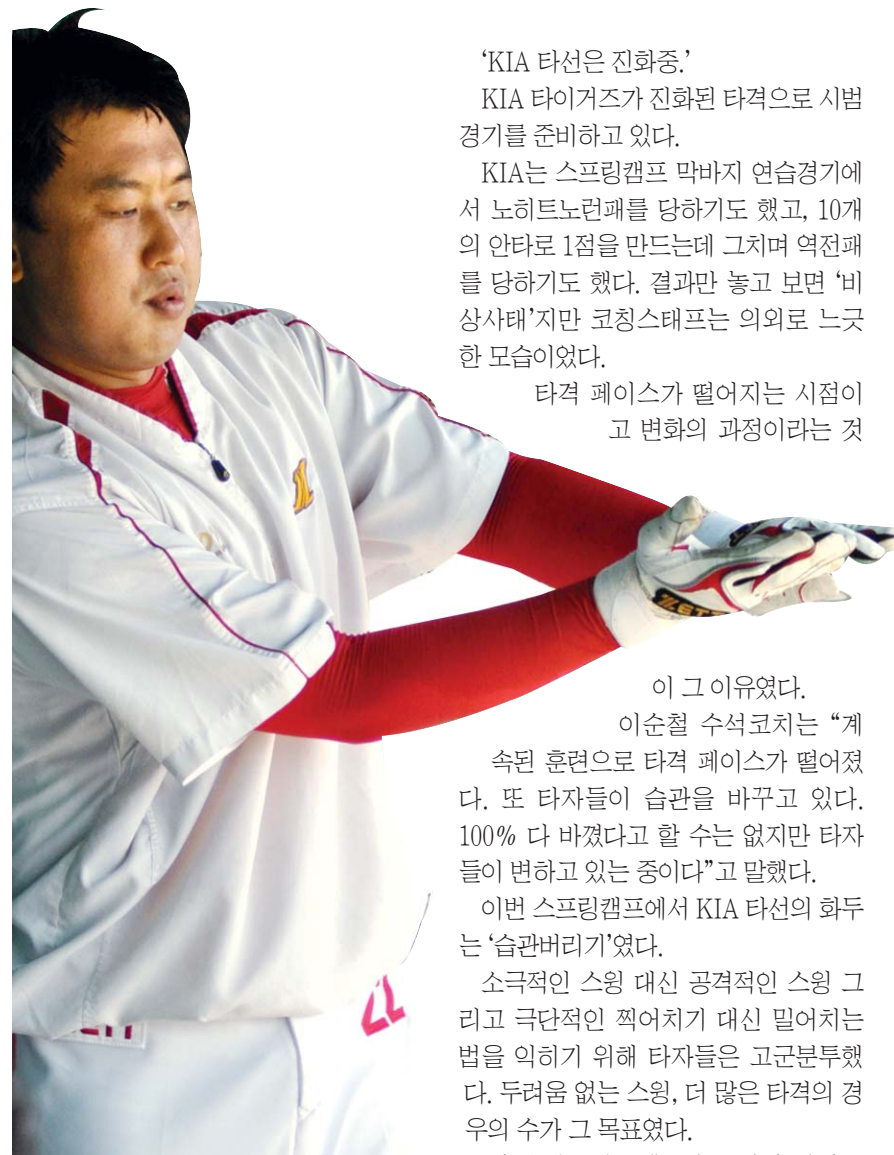
승리가 절실했던 카타르도 후반 들어 공격 숫자를 늘리며 총공세를 펼쳤지만 골키퍼 이범영(부산)을 뚫는데 실패하면서 본선 진출의 마지막 불씨를 살리지 못했다.

카타르전을 끝으로 올림픽 무대를 위한 긴 여정을 마친 대표팀은 오는 7월26일 본선 경기를 시작한다. 본선 대진 추첨은 4월24일 영국에서 진행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찍지말고 밀어쳐라”

KIA 이순철 코치 “타격은 각도 싸움” 호랑이 조련



▲ KIA 김상훈이 이순철 수석코치가 주문한 새로운 타격 스윙을 연습하고 있다. KIA는 이번 스프링캠프에서 스윙체도를 왼쪽에서 바깥쪽으로 가져가는 ‘인 아웃 스윙’으로의 변화를 꾀했다. 현대 야구에서 중요시되는 몸쪽 승부에 유리하다.

‘KIA 타선은 진화중.’

KIA 타이거즈가 진화된 타격으로 시범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KIA는 스프링캠프 마지막 연습경기에서 노히트노런패를 당하기도 했고, 10개의 안타로 1점을 만드는데 그치며 역전패를 당하기도 했다. 결과만 놓고 보면 ‘비상사태’지만 코칭스태프는 의외로 느긋한 모습이었다.

타격 페이스가 떨어지는 시점이 고 변화의 과정이라는 것

찍어치는 V자 다운 스윙 대신 타격시 내달리는 발을 축으로 벽을 세운 인 아웃 스윙이 변화의 중심이다.

이 수석코치는 “우타자의 경우 왼쪽 발목부터 무릎, 허리 어깨가 벽이 만들어져서 3루쪽으로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 배트 헤드가 앞으로 오면 스윙이 무너진다. 얻어치는 타격이 아니라 끝까지 헤드를 끌고 나와야 볼을 판단하고 떨어지는 볼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다. 점이 아니라 선을 맞추는 것이다. 감독이

화두는 “공격적으로” ‘점’ 아닌 ‘선’ 맞추기 ‘인 아웃 스윙’ 훈련

이 그 이유였다.

이순철 수석코치는 “계속된 훈련으로 타격 페이스가 떨어졌다. 또 타자들이 습관을 바꾸고 있다. 100% 다 바꿨다고 할 수는 없지만 타자들이 변하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이번 스프링캠프에서 KIA 타선의 화두는 ‘습관버리기’였다.

소극적인 스윙 대신 공격적인 스윙 그리고 극단적인 찍어치기 대신 밀어치는 법을 익히기 위해 타자들은 고군분투했다. 두려움 없는 스윙, 더 많은 타격의 경우의 수가 그 목표였다.

이 수석코치는 “두려움 없이 덤벼도 잘 안되는 게 타격이다. 코치들이 계속해서 공격적인 면을 강조했다. 스윙체제도 변화시켰다. 타격 이론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즘은 팔이 붙어서 밀어내는 스윙이 강조된다”며 “타격은 각도 싸움이다. 현대적인 야구에 맞는 인 아웃 스윙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얘기하는 게 ‘밀어쳐라’다. 그 속에 의미가 포함됐다고 보면 된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전보다는 더 공격적인 타격이 이뤄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습관 때문에 타자들이 체감하는 스윙은 ‘퍼지는 느낌’이었다. 연습과 달리 실전에서는 습관이 우선적으로 나오기도 한다.

김상훈도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했지만 코치님들과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많은 걸 공감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몸에 익어가고 있다. 최고의 타격은 역시 자신에게 맞는 타격인 것 같다. 그것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스윙의 변화 움직임과 함께 주전과 백업의 격차가 줄어든 것도 성과다.

이 수석코치는 “주루플레이에서 차이가 나지만 박기남·홍재호·이현근 등이 주전 경쟁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공백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제라드 해트트릭 400경기 자축

리버풀, 3-0 에버튼에 승리

프리미어리그에서 ‘전통명문’으로 꼽히는 리버풀의 주장인 스티븐 제라드(32)가 해트트릭으로 자신의 프리미어리그 400경기 출전을 자축했다.

제라드는 14일 새벽(한국시간)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열린 에버튼과의 2011-2012 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 홈 경기에서 전반 34분 결승골을 시작으로 후반 7분 추가골과 후반 인저리 타임에 헤딩골을 터뜨려 팀의 3-0 승리를 이끌었다.

1998년 리버풀에 입단해 프리미어리그에서 400경기째 출전한 제라드는 지역 라이벌인 에버튼과의 ‘머지사이드 더비’에서 혼자 3골을 책임지는 맹활약을 펼쳐 홈팬들의 기립 박수를 받았다.

최근 정규리그 3연패에 빠진 리버풀은 이날 제라드의 활약 덕분에 60년 만의 4연패 위기에서 탈출하는 결정사를 맞았다.

제라드는 전반 34분 마틴 켈리의 슛이 골

키퍼 선방에 막혀 흘러나오자 재빨리 차넣어 해트트릭의 전주곡을 울렸다. 후반 6분 루이스 수아레스의 패스를 받아 추가골을 터뜨린 제라드는 후반 인저리 타임에 헤딩골을 꽂아 자신의 통산 두 번째 해트트릭을 완성했다.

이날 승리도 리버풀은 11승9무8패(승점 42)로 7위를 유지, 6위 뉴캐슬(승점 42)을 바짝 뒤쫓았다.

/연합뉴스

**함평다이너스티CC 봄맞이 고객이벤트**

구분	3월 14일~3월 31일	4월 1일~4월 30일
주중 그린피	1부 첫팀~08시 이전 08시~1부 막팀	7만원 10만원
주말 그린피	2부	10만원 12만원
		15만원 16만 5천원

1. 매주 월요일 로즈데이(여성고객) 그린피: 9만원(1, 2부 전체)  
2. 상기 그린피는 카트비 별도임 (예약전화: 061-320-7700, 7777)

광주·전남 유일한 **고객 맞춤형 호텔웨딩!!!**

# 신양파크호텔

| 오직 한쌍만을 위한 웨딩...  
당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위해 준비 했습니다.

**적용기간 4월 22일~5월 20일 / 7월~8월**

예약문의\_ 062 - 221 - 4101~3    http://shinyangparkhotel.com

**₩25,000**  
부터~  
(세금 별도)